

#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연구\*

-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를 중심으로 (IV) -

A Study on the Names of Korean Old Movable Types

윤상기(Yoon, Sang-Kee)\*\*

##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표준 활자명의 선정 |
| 2. 활자별 연구 결과와 기존 활자명 | 5. 결 론        |
| 3. 기존 활자명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이 연구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목활자들 중 일부 활자의 기본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은 먼저 대상 활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간단한 내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각 문헌을 통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을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하여 각 활자별로 나열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이 어떤 요소들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선호도는 새로 발견된 활자에 대하여命名하거나 기존의 활자에 대해 改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필자 나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총 11종의 활자들에 대하여 ‘金陵集字’, ‘增註三字經字’, ‘光州筆書體木活字’, ‘光州大峙祠筆書體木活字’, ‘寶光社印書體字’, ‘孝宗御批大字’, ‘七政曆木活字’, ‘學部印書體木活字’, ‘耶蘇三字經唐大字’, ‘耶蘇三字經韓大字’, ‘耶蘇三字經洋大字’를 각각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하였다.

요어 : 활자명, 한국 고활자

\* 본 논문은 2003학년도 동의대학교 자체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yhsong@hymin.donggeui.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veral basic wooden movable types carved i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description begins with summarizing each basic history of movable types.

Subsequently the existing movable types are examined as many as possible and arranged one by one.

And through analyzing the elements used in these movable type names, it is examined which elements were preferred by the existing movable type names. This preference could be helpful for naming the newly found types or renaming the existing types.

Finally, each standard name of movable types has been selected in total 11 movable types with applying writer's own selection standard. Those are as follows:

'Geumneungjipja(金陵集字)', 'Jeungju samjagyeongja(增註三字經字)', 'Gwangju pilseoche mokwalja(光州筆書體木活字)', 'Gwangju daechisa pilseoche mokwalja(光州大峙祠筆書體木活字)', 'Bogwangsa inseocheja(寶光社印書體字)', 'Hyojong eobi daeja(孝宗御批大字)', 'Chiljeongnyeok mokwalja(七政曆木活字)', 'Hakbu inseoche mokwalja(學部印書體木活字)', 'Yaso samjagyeong dang daeja(耶蘇三字經唐大字)', 'Yaso samjagyeong han daeja(耶蘇三字經韓大字)', 'Yaso samjagyeong yang daeja(耶蘇三字經洋大字)'.

Keywords : Movable Types Names, Korean old Movable Type

## 1. 서론

이 논고는 서지학계에서 사계의 증지를 모아 한국의 모든 고활자에 대한 명칭을 統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필자가 계획·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 중 한 부분이다. 이에 앞서 이루어진 임진왜란 이전의 금속활자명과 목활자명,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금속활자명과 일부의 목활자명에 대한 총 일곱 편의 연구 결과는 「東義論集」,<sup>1)</sup> 「書誌學研究」,<sup>2)</sup> 「書誌學報」,<sup>3)</sup> 및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sup>4)</sup>에 각각 발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 연구가 독립적인 연구였다면 마땅히 이 글에서 기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생략하였다. 필자가 이미 앞서 발표한 논문들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반복 기술하면서 아까운 紙面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략된 관련부분들 중, 이 일련의 연구의 의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의 ‘I. 들어가면서’<sup>5)</sup>를,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활자명의 命名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의 ‘II. 既存의 活字名 命名法’<sup>6)</sup>을 참고하고, 필자가 그 동안 각 논고에서 제시한 활자명의 선정 기준과 命名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의 ‘V. 勸獎 命名法’<sup>7)</sup>, 두 번째 논문의 ‘V. 勸獎 選定

1) ①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前の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4集(1996. 9), 人文·社會科學篇 201-255.

②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前の 木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8集(1998. 2), 人文·社會科學篇 545-587.

2) ①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乾),” 『書誌學研究』 第1輯(1998. 12), 297-334.

②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101-129.

③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II),” 『書誌學研究』 第2輯(2002. 12), 437-471.

3)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坤),” 『書誌學報』 第22號(1998. 12), 89-122.

4) 윤상기,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를 중심으로 (II),”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61-85.

5) 윤상기(1996. 9), 201-203.

6) 윤상기(1996. 9), 203-206.

基準과 命名法<sup>8)</sup> 및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논문의 '5. 勸獎 選定 基準과 命名法<sup>9)</sup>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목활자들 중 조성시기 순에 따라 먼저 발표한 29종의 목활자에 이어 마지막 남은 11종의 목활자들에 대하여 기본활자를 중심으로 표준 활자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같은 기간에 조성된 한글 활자나 크기에 따른 활자명, 계열활자명, 그리고 기타 아직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아 다루지 못하고 지나쳤던 활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稿를 달리하여 발표할 작정이다.

이 논고에서 다룰 목활자들은 대체로 순조조 중기부터 조선조 말까지 약 100년간에 걸쳐 조성된 활자들이다. 이 시기에 주·조성된 다른 활자들에 대하여 개관해보면, 먼저 금속활자로는 순조 16(1816)년에 朴宗慶(1765~1817)이 사사로이 만든 동활자인 敦岩印書體字가 있었는데, 자신의 일가와 친척 그리고 주로 민간의 책을 찍는데 이용되었다.

정조 18(1794)년에 신설된 鑄字所로 옮겨져 사용되던 初鑄整理字와 再鑄韓構字가 철종 8(1857)년 10월에 鑄字所에 불이 나서 다른 활자들과 더불어 그 일부가 소실되자, 이듬해인 철종 9(1858)년 다시 동활자인 再鑄整理字와 三鑄韓構字를 주조하였다.

철종·고종 연간에는 七政曆鐵活字를 새로 주조하여 七政曆들을 찍었으며, 광무 11(1907)년 明時曆과 융희 2(1908)년 明時曆에는 鉛 또는 아연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明時曆字가 사용되었다. 융희 2(1908)년에 比安의 比汀齋에서는 금속활자로 여겨지는 납작한 모양의 整理字體 활자로 족보를 찍었다.<sup>10)</sup>

한편 이 시기에는 금속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목활자들이 조성되었는데, 그들 중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것들은 이 논고에서 모두 다루고 있

7) 윤상기(1996. 9), 247-250.

8) 윤상기(1996. 9), 580-582.

9) ① 윤상기(1998. 12), 333.

② 윤상기(2000. 6), 128-129.

10) ① 尹炳泰, "朝鮮時代 活字 使用考," 『奎章閣』 2(1978. 12), 74.

②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서울: 범우사, 1992), 519.

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세하게 규명되지 않은 활자들도 많이 있으니, 먼저 순조 대를 살펴보면, 순조 19(1819)년 12월에 지방에서는 箕營筆書體字를 닮은 목활자를 사용했고, 동왕 23(1823)년 松湖書院에서는 인서체의 雜活字를 사용하였다.<sup>11)</sup> 동왕 27(1827)년 8월에 永同에서 족보를 찍는데 사용한 목활자도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sup>12)</sup> 동왕 30(1830)년에 開城에서는 인서체목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sup>13)</sup> 같은 해 7월에 玉溪書院에서도 특이한 필서체목활자를 사용하였다.<sup>14)</sup>

헌종조에는 헌종 3(1837)년에 庇仁에서 인서체목활자를 사용했으며,<sup>15)</sup> 동왕 8(1842)년 8월에 羅州에서는 굵은 필서체의 목활자로 梁應鼎(1519~1581)의 문집인 「松川先生遺集」을 찍어냈고, 동왕 15(1849)년 5월에 柄山祠에서는 整理字를 모방한 목활자를 사용했다.<sup>16)</sup>

철종조에는 철종 5(1854)년 1월에 宣川 龍馬所에서 목활자를 사용했으며,<sup>17)</sup> 동왕 8(1857)년에 「三梅堂題詠」을 찍을 때는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친필을 模刻한 연각목활자로 <三梅堂八景>을 찍었다.<sup>18)</sup> 동왕 9(1858)년 12월에 충

11)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5. 12), 121.

12) ① 尹炳泰(1992), 301.

②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교양 국사 총서·21), 256.

③ 尹炳泰(1978. 12), 71.

13) ① 尹炳泰(1992), 301.

② 尹炳泰(1978. 12), 71.

14) 尹炳泰(1975. 12), 122.

15) ① 尹炳泰(1992), 301.

② 손보기(1977), 256.

③ 尹炳泰(1978. 12), 71.

16) ① 尹炳泰(1992), 301, 516.

② 손보기(1977), 256.

③ 尹炳泰(1978. 12), 71.

17) ① 尹炳泰(1992), 516.

② 尹炳泰(1978. 12), 71.

18) 尹炳泰(1992), 516.

청도 관찰사였던 金應根(1793~1863)이 公州에서 「公山誌」를 찍을 때는 약간 뽕족한 方形의 인서체목활자를 사용하였으며,<sup>19)</sup> 또한 동왕 14(1863)년부터 고종 24(1887)년 경까지 약 25년 동안에 주로 私家文集의 인출에 이용된 敦岩印書體字를 닮은 목활자도 있다.<sup>20)</sup>

고종조에는 고종 18(1881)년 봄에 開城에서 方形의 인서체목활자로 「初庵先生全集」을 찍었는데, 권수에 있는 <年譜>에는 대형의 인서체목활자가 혼용되었다.<sup>21)</sup> 이 무렵 尙州의 東學敎堂에서도 목활자로 두 번에 걸쳐 서적을 인출하였는데, 첫 번째는 고종 18(1881)년 丹陽郡 南面 泉洞 呂圭德의 집에 경전간행소를 두고 최시형의 주도로 「龍潭遺詞」수백 부를 인출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종 20(1883)년 5월에 목천에서 공주집과 영남집, 동협집이 힘을 모아 「東經大全」과 「龍潭遺詞」를 인출한 것이다.<sup>22)</sup> 동왕 22(1885)년경에는 博文局에서 敦岩印書體字를 모방한 목활자를 사용하였으며,<sup>23)</sup> 동왕 25(1888)년 11월과 12월에는 箕營에서 필서체목활자로 「鄉禮三選」등의 책을 찍고 있었다.<sup>24)</sup> 동왕 26(1889)년 大邱 嶺營의 牛痘局에서도 치졸한 필서체목활자로 「濟嬰新編」을 찍었다.<sup>25)</sup> 고종 30(1893)년 7월에 趙克善(1595~1658)의 문집인 「治谷先生集」을 찍을 때는 孝宗御批大字와 함께 지갯다리劃 印書體字를 닮은 목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 목활자로는 같은 저자의 「三官記」도 찍었다.<sup>26)</sup> 건양 2년 혹은 광무 원(1897)년에는 고종 25(1888)년에 箕營에서 「鄉禮三選」를 찍는데 사용했던 필서체목활자를 모방한 목활자가 사용되었으며,<sup>27)</sup> 같은

19) ① 諸洪圭 編著, 「韓國書誌學辭典」(서울: 景仁文化社, 1974), 152.

②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서울: 寶晉齋, 1982), 132.

③ 尹柄泰(1992), 490.

20)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第4輯(1967. 7), 55.

21) 尹柄泰(1992), 302.

22) 裴賢淑, “尙州 東學敎堂 刊行과 收藏 書籍考,” 「書誌學研究」第22輯(2001. 12), 42-43.

23) ① 尹柄泰(1992), 303.

② 尹柄泰(1978. 12), 72.

24) 尹柄泰(1992), 28.

25) ① 尹柄泰(1978. 12), 72.

② 趙婷化,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關한 書誌的研究,” 「書誌學研究」第2輯(1987), 304.

26) 尹柄泰(1992), 483 주 7).

해 7월에 履有齋에서 方形의 인서체목활자로 『全城世稿』를 찍을 때는 <世宗大王手書>를 찍기 위해 대형의 목활자가 함께 사용되었다.<sup>28)</sup> 광무 2(1898)년 10월에는 안동지방의 姜氏들이 整理字와 거의 비슷한 목활자를 사용 하였으며,<sup>29)</sup> 광무 4(1900)년 9월에 崔瀼(1352~1424)의 事蹟을 적은 『金鑑錄』을 중간할 때는 대·중·소자의 방형 인서체목활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sup>30)</sup>

그 외에도 순조 19(1819)년 12월의 인출년도가 분명한 土活字의 사용이 있으며,<sup>31)</sup> 1900년대 초 전주지방 奇氏 문중에서 문중 족보를 발간하기 위해 만든 대나무 활자도 있다.<sup>32)</sup>

## 2. 활자별 연구 결과와 기존 활자명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활자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알려진 사항들 중 기존의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2.1 金陵集字

정조 16(1792)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순조 대에 이르기까지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는 南公轍(1760~1840)이 사사로이 만든 중자와 소자의 목활자이다. 활자의 크기는 중자가 1.1×1.4cm, 소자가 1.1×0.7cm이다.<sup>33)</sup> 활자를

27) ① 尹炳泰(1992), 304.

② 尹炳泰(1978. 12), 73.

28) 尹炳泰(1992), 492, 518.

29) 尹炳泰(1992), 518.

30) 尹炳泰(1975. 12), 161, 163.

31) 尹炳泰(1992), 300.

32) 安春根, “匏活字 存否에 대하여,” 『季刊書誌學報』 第3號(1990. 12), 82 주 1).

3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371.

조성한 해는 분명하지 않으나, 순조 15(1815)년에 찍은 자신의 저서 「金陵集」이 첫 인본으로 생각되므로 그 해나 그 직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 활자의 글자체는 운필이 부드러우면서 세로로 길쭉하고 글자 획의 파임에 屈曲上向性이 나타나고 있는 필서체인 것이 특징이다.<sup>34)</sup> 자본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장과 추측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1960년에 발표한 글에서 房兆楹은 崇禎癸未(인조 21(1643))년에 明에서 인출한 錢謙益(1582~1664)의 「牧齋初學集」을 자본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sup>35)</sup> 그러나 이 주장은 단지 글자체가 닮았다는 것에 근거할 뿐, 다른 분명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牧齋初學集」을 자본으로 단정한 표현은 1974년에 간행된 「韓國書誌學辭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36)</sup> 아마도 房兆楹의 글에 근거했을 것이다.

1967년 이후로 金斗鍾은 「牧齋初學集」을 자본으로 조각한 것인 것 같다고 하였는데,<sup>37)</sup> 이는 아마도 房兆楹의 글을 이미 보았으며, 그 글에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 역시 근거를 찾지 못하여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못했던 것 같다. 金陵集字와 「牧齋初學集」의 글자체가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그 후 천혜봉도 인정하였다.<sup>38)</sup>

초기의 주장들 중에는 房兆楹의 글을 미처 보지 못했는지 중국 武英殿聚珍版을 자본으로 하였다고 발표한 이들도 있었으나,<sup>39)</sup> 이는 이 활자로 찍은 「歸恩堂集」에서 聚珍版本이라 한 것과 헌종 4(1838)년에 이 활자로 간행한 「保晚齋集」의 발문 중에 이 활자를 聚珍字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등에 현혹되어 武英殿聚珍版을 자본으로 하였을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聚珍版이나 聚

34)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서울: 민음사, 1997), 491.

35) 房兆楹, “鑄字瑣談,” 「書誌」第1卷 第2號(1960. 8), 28-29.

36) 諸洪圭 編著(1974), 162.

37) ① 金斗鍾(1967. 7), 42.

②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330.

38) 千惠鳳(1997), 491.

39) ① 金錫淳, “韓國의 古活字 小考,” 「도협월보」5, no. 6(1964. 7-8), 6.

② 金錫淳, “韓國의 古活字와 그 印本,” 「건대신문」第183號1964. 9. 18(金), 2.

③ 李潭周 編著, 「韓國古活字集」(서울: 1967), 17.



珍字는 단지 활자라는 뜻일 뿐이다.

아무튼 이 활자는 본시 남공철 자신의 중국 취진판에 대한 호기심이 이렇듯 만들어냈던 것이다. 활자의 재료가 武英殿聚珍版과 같은 나무인 점, 첫 인본으로 생각되는 自著의 「金陵集」에 사용된 책지가 중국의 상품 竹紙인 점,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이 활자 인본들에 聚珍版本, 聚珍字 등의 용어가 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그의 중국풍 취미가 글자체까지 중국의 간인본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달필가로 하여금 닮게 써서 활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sup>40)</sup>

활자의 사용기간은 약 24년간으로 전존하는 인본들 중 순조 15(1815)년에 찍은 「金陵集」이 첫 인본으로 생각되며, 헌종 4(1838)년 9월에 찍은 「保晚齋集」이 가장 늦게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의 인본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활자의 행방도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奎章閣字’,<sup>41)</sup> ‘金陵集字’,<sup>42)</sup> ‘金陵聚珍字’,<sup>43)</sup> ‘箕營木字’,<sup>44)</sup> ‘倣聚珍版式 筆書體 나무活字’,<sup>45)</sup> ‘倣聚珍版式 筆書體木活字’,<sup>46)</sup> ‘倣聚珍版式 筆書體字’,<sup>47)</sup> ‘聚珍木活字’,<sup>48)</sup> ‘聚珍字’,<sup>49)</sup> ‘聚珍版字’,<sup>50)</sup> ‘聚珍筆書體字’,<sup>51)</sup> ‘筆書體聚珍字’<sup>52)</sup> 등이 있다.

40) 千惠鳳(1997), 491-493.

41) 손보기(1977) 등 3종의 자료.

42) 尹柄泰(1992) 등 2종의 자료.

43) 천혜봉, 「한국목활자본」(서울: 범우사, 1993) 등 4종의 자료.

44)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서울: 乙酉文化社, 1954) 《國立博物館叢書, 甲 第一》 등 2종의 자료.

45) 손보기(1977).

46) 尹柄泰,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 들,” 『圖書館學』 第 3輯 (1973. 12), 47-82, 125 등 3종의 자료.

47) 손보기(1982).

48) 李聖儀, 「韓國古活字冊書目」, 油印本 ([私家版 1965]).

49) 前間恭作, “朝鮮의 活字板本 增註「朝鮮의 板本」拔抄,” 『朝鮮之圖書館』 5, no. 6(1936. 12), 29-60 등 24종의 자료.

50) 房兆楹(1960. 8), 28-29.

51) 千惠鳳, 「韓國古印刷史」(서울: 韓國圖書館研究會, 1976).

52) 千惠鳳(1990) 등 9종의 자료.

## 2.2 增註三字經字

아동교육에 필요한 한자의 經文을 석 자씩 떼어 口訣로 토를 달고 한자로 주석한 訓蒙書인 「增註三字經」의 인출을 위해, 朴秉殷 등이 순조 25(1825)년에 만든 대자, 소자 및 구결자의 목활자들이다.<sup>53)</sup> 이 활자에 대해서는 尹炳泰가 처음으로 소개하였다.<sup>54)</sup>

이 활자의 자본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으나 글자체는 韓濩(1543~1605)의 글씨체를 닮게 썼으며, 대자는 1.5×2.0cm 크기의 楷書體이고 소자는 0.7×0.9cm 크기의 楷書體에 가까운 필서체이다. 활자 중 대자는 單字와 連字로 새긴 것을 혼입·조판하여 인쇄한 것이 특징이다.<sup>55)</sup>

민간에서 만든 목활자로 찍은 인본으로는 숨씨가 정교한 편이어서 대자와 소자의 글자체가 다 같이 해정하다.<sup>56)</sup> 이 활자로 인출한 책은 서울에서 찍은 「增註三字經」 외에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sup>57)</sup>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增註三字經字」<sup>58)</sup>와 「訓蒙三字經字」<sup>59)</sup>가 있다.

## 2.3 光州筆書體木活字

1840년대 초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주로 호남지방에서 족보와 문집 등 민간출판물을 찍는데 사용한 굵은 필서체의 正方形으로 된 목활자이다.<sup>60)</sup> 이

53) 千惠鳳(1997), 494.

54) 尹炳泰, “「增註三字經」字考,” 『國會圖書館報』第12卷 第3號(1975. 4), 27-34.

55) ① 千惠鳳(1997), 494.

② 尹炳泰(1992), 411.

③ 尹炳泰(1975. 4), 31.

56) 千惠鳳(1997), 494.

57) ① 尹炳泰(1975. 4), 32-33.

② 尹炳泰(1992), 405.

58) 尹炳泰(1975. 4) 등 3종의 자료.

59) 錢海鏞(1993) 등 3종의 자료.

활자에 대해서는 玉泳最이 처음으로 자세히 소개하였다.<sup>61)</sup>

이 활자의 인출서책으로 현전하는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현종 7(1841)년 인출의 「長澤高氏族譜」이다. 이 책에는 ‘崇禎二百一十三年庚子十一月日刊于光州鴨村參議公齋閣’이라는 인출기록이 있는데, 옥영정은 이 인출기록 중 ‘刊’을 목활자를 새겨서 인출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 활자를 광주의 高氏家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sup>62)</sup> 즉, 이 활자는 현종 7(1841)년에 광주의 高氏家에서 「長澤高氏族譜」를 찍기 위해 조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 활자의 특징은 字形이 正方形인 점, 자획이 다소 굵은 점, 글자의 크기가 본문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활자에 비해서 비교적 큰 편인 점 등이며, 특이자로는 ‘爲’와 ‘所’자를 들 수 있다.<sup>63)</sup>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光州高氏筆書體木活字’<sup>64)</sup>와 ‘光州筆書體木活字’<sup>65)</sup>가 있다.

## 2.4 光州大峙祠筆書體木活字

철종 5(1854)년 봄에 光州<sup>66)</sup>의 大峙祠에서 「李氏兩賢實紀」와 「忠莊公年譜」를 인쇄할 때 사용한 목활자이다.

이 활자는 자형이 납작하고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이다.

위의 두 책 외에는 알려진 인본이 없으며, 활자의 조성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발견된 것이 없다.

60) 玉泳最,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 專攻, 2002. 10), 36-40.

61) 玉泳最(2002. 10), 36-42.

62) 玉泳最(2002. 10), 36-37.

63) ① 玉泳最(2002. 10), 38-40.

② 玉泳最, “光州筆書體木活字와 印本 研究,” 『書誌學研究』第25輯(2003. 6), 351-353.

64) 玉泳最(2002. 10) 등 2종의 자료.

65) 玉泳最(2002. 10) 등 2종의 자료.

66) 현재의 행정구역명은 潭陽郡 大田面 大峙里이다.

이 활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1975년에 尹炳泰가 석사학위논문에서 처음으로 간단히 언급하였으나 인출처를 大崎祠로 誤植한 탓에,<sup>67)</sup> 그 후 계속 大崎祠로 인용되어 오다가<sup>68)</sup> 玉泳晟이 박사학위논문에서 大峙祠로 바로 잡아 기록하였다.<sup>69)</sup> 위의 두 책에는 ‘歲在甲寅春大峙祠印出’이라는 동일한 간기가 있다. 大峙祠는 영조 30(1754)년에 설립되었으며, 永川 李氏家の 李釋之(고려말) 등 8현을 모신 사우이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光州大峙祠筆書體木活字’<sup>70)</sup> 뿐이다.

## 2.5 寶光社印書體字

李裕元(1814~1888)이 청나라 燕京에 갔을 때 瑠璃廠의 서점에서 구입한 『金剛般若波羅蜜經』 등의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 고종 6(1869)년 楊州 天摩山에 위치한 寶光社에서 조성한 목활자이다.<sup>71)</sup> 이 활자는 尹炳泰가 1975년에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가,<sup>72)</sup> 1989년에 이 활자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sup>73)</sup>

글자체는 燕京에서 구해온 이들 청나라 판본의 인서체 글자를 닮게 새겨 만든 것인데, 새김이 거칠어 글자 획의 굵기와 가늘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글자 모양이 가지런하지 않다.<sup>74)</sup>

67) 尹炳泰(1975. 12), 122.

68) ① 손보기(1977), 256.

② 尹炳泰(1978. 12), 71.

③ 손보기(1982), 115.

④ 尹炳泰(1992), 301, 516.

69) 玉泳晟(2002. 10), 43-44.

70) 玉泳晟(2002. 10).

71) 千惠鳳(1997), 496.

72) 尹炳泰(1975. 12), 123.

73) 尹炳泰, “寶光社 印書體字에 대하여,” 『古書研究』 第6號(1989. 12), 5-16.

74) 千惠鳳(1997), 496.

현재까지 발견된 이 활자의 인본들은 「金剛般若波羅蜜經」을 石成金이 주해하고 제목을 붙인 「金剛經石註」를 비롯하여 「六祖大師法寶壇經」, 「普徧光明焰鬘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의 3종으로 모두 고종 6(1869)년에 인출된 책들이다.<sup>75)</sup> 이들 책에는 고종 6(1869)년 여름, 양주 천마산 寶光社에서 찍어냈다는 印記가 똑같이 붙어 있는데, 그 印記에는 본문·인출의 校正者 및 共力者, 化緣과 監董, 鑄員 등이 적혀 있다. 鑄員은 鑄字를 활자의 개념으로 관용한 데서 쓰인 것이며, 활자를 만든 刻字員을 뜻하는 용어라 하겠다. 그리고 그 印記의 앞에는 주상, 왕비 전하를 위시한 대비들과 대원군 양위의 만수 그리고 나라의 안녕과 병화 없는 태평을 기원하는 글이 있으며, 印記의 뒤에는 공덕과 명복을 빈 대상의 生者和 亡者の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sup>76)</sup>

이 활자는 1950~53년 사이의 6·25사변 중에 燒失되었다.<sup>77)</sup>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寶光社印書體字’<sup>78)</sup>와 ‘寶光社字’<sup>79)</sup>가 있다.

## 2.6 孝宗御批大字

고종 30(1893)년 7월에 지갯다리劃 印書體字를 닮은 목활자로 趙克善(1595~1658)의 문집인 「治谷先生集」을 찍을 때, 효종의 御筆을 찍은 대형 목활자이다. 尹炳泰가 처음으로 찾아내 소개하였다.<sup>80)</sup>

이 활자는 효종의 친필을 그대로 模刻하여 만든 목활자로서, 「治谷先生集」 卷12에 있는 <御筆親批> 6張 10面을 찍는데 쓰였는데, 13行의 連刻字와 9자의 單字 등 모두 22行 90字이다. 그 중에는 네모 속에 든 ‘啓’자가 7자 들어 있

75) 尹炳泰(1992), 454-461.

76) 千惠鳳(1997), 496, 498.

77) 尹炳泰(1992), 302.

78) 尹炳泰(1989, 12) 등 3종의 자료.

79) 千惠鳳(1993) 등 2종의 자료.

80) 尹炳泰(1975, 12), 124, 136-137.

다.<sup>81)</sup> ‘啓’자는 크기가 4.5×4.5cm 내외의 方形이나, 글자의 모양은 모두 꼭 같지 않다. 連刻字는 4.5×23cm 내외의 장방형으로 초서체의 글씨이다.<sup>82)</sup> 이와 같은 활자 조성의 사정상 이 활자로 찍은 다른 인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孝宗大字’,<sup>83)</sup> ‘孝宗御批大字’,<sup>84)</sup> ‘孝宗御筆大字’<sup>85)</sup> 등이 있다.

## 2.7 七政曆木活字

이 활자는 金相溟가 七政曆들을 조사하여 판본을 분석하면서 찾아낸 대자, 중자 및 소자의 목활자로서, 고종 32(1895)년의 七政曆 인출에 사용되었다.<sup>86)</sup> 활자의 크기와 굵기가 고르지 않은 조잡한 목활자로서, 대자는 2.5×1.7cm 내외, 중자는 1.2×0.8cm 내외, 소자는 0.5×0.4cm에서 0.6×0.8cm 내외로 두서너 자씩 連刻된 듯하다.<sup>87)</sup>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刊曆鑄字’,<sup>88)</sup> ‘刊曆活字’,<sup>89)</sup> ‘觀象監木活字’, ‘觀象監鐵活字’, ‘觀象監活字’, ‘三曆鑄字’,<sup>90)</sup> ‘書雲館鐵活字’, ‘印曆木字’, ‘印曆字’,<sup>91)</sup> ‘印曆鑄字’,<sup>92)</sup> ‘冊曆字’, ‘七政曆木活字’,<sup>93)</sup> ‘七政曆字’ 등이 있다.

81) 尹炳泰(1975. 12), 136.

82) 尹炳泰(1975. 12), 136.

83) 尹炳泰(1975. 12) 등 2종의 자료.

84) 尹炳泰(1978. 12) 등 2종의 자료.

85) 尹炳泰(1992).

86) 金相溟, “觀象監活字考,” 『圖書館學』第14輯(1987), 144-145.

87) 金相溟(1987), 144-145.

88) 朴齊家, 北學議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1).

89) 尹炳泰(1992).

90)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3) 純祖 11年 3月 27日.

91) 沈海(1993).

92) 沈守慶, “遺閑雜錄,” 『大東野乘』, 影印本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등 3종의 자료.

93) 金相溟(1987), 131-148.

## 2.8 學部印書體木活字

고종 32(1895)년에 學部の 편집국에서는 당시의 새로운 문물과 근대화 의식을 정치, 사회, 역사, 지리, 기예, 도의 등 여러 분야에서 수용하기 위해 교과서의 개편작업을 단행하였는데, 이 때 교과서들을 찍어내기 위해 後期校書館印書體字를 자본으로 하여 새로 만든 중자와 소자의 목활자이다. 이 때 한글자도 함께 만들었으며, 後期校書館印書體字와 혼용하여 교과서들을 인출하였다.<sup>94)</sup>

크기는 중자가 1.0×1.3cm, 소자가 1.0×0.7cm 이다.<sup>95)</sup> 인본을 볼 때, 글자 획이 가늘게 닳고 일그러진 것은 後期校書館印書體字이고, 글자 획이 굵고 먹색이 시커멓게 묻은 것이 이 활자이다. 이 활자는 응급적인 조치로 서둘러 새겨냈기 때문에 글자 획이 가지런하지 않고 활자 모양이 정연치 않아 인쇄 상태가 조잡한 편이다.<sup>96)</sup>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學部나문字’,<sup>97)</sup> ‘學部木活字’,<sup>98)</sup> ‘學部印書體木活字’,<sup>99)</sup> ‘學部印書體字’,<sup>100)</sup> ‘學部字’,<sup>101)</sup> ‘學部活字’<sup>102)</sup> 등이 있다.

## 2.9 耶蘇三字經唐大字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어린이용 訓蒙三字經의 체제를 본떠서, 한자로 번역한 기독교 교리의 중요 대목

94) 千惠鳳(1997), 498.

95) 손보기(1982), 412.

96) 千惠鳳(1997), 498.

97) 손보기(1977) 등 3종의 자료.

98)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서울: 同研究所 出版部 1968) 등 13종의 자료.

99) 金斗鍾(1967. 7) 등 7종의 자료.

100) 金斗鍾(1974) 등 10종의 자료.

101) 손보기(1982) 등 3종의 자료.

102) 李潭周 編著(1967) 등 2종의 자료.

을 한자 큰 글자 석 자씩 구분하여 매 한자 아래 한글로 訓과 音을 표시하고, 그 끝에 한글로 토를 단<sup>103)</sup> 「眞理便讀三字經」을 唐紙, 韓紙 및 洋紙에 인쇄해냈다. 이들 책에서 사용된 3종의 한자 대자는 모두 목활자들이며 전부 尹炳泰가 처음으로 소개하였다.<sup>104)</sup> 그 중 唐紙에 인쇄한 「眞理便讀三字經」에 쓰인 한자 대자이다. 활자의 크기는 1.8×1.7cm 내외이다.<sup>105)</sup> 唐紙本 「眞理便讀三字經」은 고종 32(1895)년에 耶蘇敎書局에서 인쇄하였는데, 3종의 「眞理便讀三字經」중 가장 먼저 인쇄된 것이다.<sup>106)</sup>

다른 2종의 「眞理便讀三字經」에 쓰인 한자 대자가 인쇄체인 반면, 이 한자 대자만은 필서체에 가까운 자체인데 그 자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표제지에 ‘朝鮮開國五百四年乙未京耶蘇敎書局印發’이라고 적혀져 있는 印出記를 통해 이 활자를 만든 곳은 耶蘇敎書局이고, 자본은 아마도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sup>107)</sup>

인본은 唐紙本 「眞理便讀三字經」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동일한 내용을 1900년경에 韓紙에 인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활자는 唐紙本 「眞理便讀三字經」의 인쇄 직후 폐기 처분되었거나, 사용되었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耶蘇三字經唐大字’,<sup>108)</sup> ‘耶蘇三字經大字’,<sup>109)</sup> ‘耶蘇三字經字’<sup>110)</sup> 등이 있다.

## 2.10 耶蘇三字經韓大字

103) 천혜봉(1993), 126.

104)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도서관」第29卷 第10號(1974. 12), 21-32.

105) 尹炳泰(1992), 469.

106) 尹炳泰(1992), 469-475.

107) 尹炳泰(1975. 12), 139.

108) 尹炳泰(1974. 12) 등 2종의 자료.

109) 尹炳泰(1978. 12) 등 2종의 자료.

110) 천혜봉(1993) 등 3종의 자료.



2.9에서 설명한 3종의 「眞理便讀三字經」 중 韓紙에 인쇄한 「眞理便讀三字經」에 쓰인 한자 대자의 목활자이다. 활자의 크기는 2.1×1.7cm 내외이다.<sup>111)</sup>

이 활자로 찍은 韓紙本 「眞理便讀三字經」에는 인출기가 없지만,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활자의 조성에 관하여 추정해볼 수는 있다. 우선 韓紙本 「眞理便讀三字經」의 인출년도는 尹炳泰에 의하여 19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12)</sup> 이미 2.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종 32(1895)년 인출의 唐紙本 「眞理便讀三字經」을 찍은 耶蘇三字經唐大字는 耶蘇敎書局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융희 2(1908)년 인출의 洋紙本 「眞理便讀三字經」은 표제지에 ‘大韓隆熙二年戊申 예수교서회간인’이라는 간인기가 있어서 이 때 사용한 한자 대자 목활자 역시 예수교서회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인본의 인출처인 耶蘇敎書局과 예수교서회는 근본적으로 같은 단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韓紙本 「眞理便讀三字經」<sup>113)</sup>에 붙어 있는 첩지에는 이전 소장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sup>114)</sup> ‘耶蘇敎書會刊’라는 기록이 묵서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眞理便讀三字經」으로서 唐紙本과 洋紙本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韓紙本 「眞理便讀三字經」에 사용된 이 활자 역시, 1900년경에 耶蘇敎書會에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耶蘇三字經唐大字는 필서체에 가까운 자체인데 반해, 이 활자는 인서체에 가까운 자체인데, 그 자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인본은 耶蘇三字經唐大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紙本 「眞理便讀三字經」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동일한 내용을 1908년경에 洋紙에 인출하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활자는 韓紙本 「眞理便讀三字經」의 인출 직후 폐기 처분되었거나, 사용되었더라도 8년을 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111) 尹炳泰(1992), 471.

112) 尹炳泰(1992), 471-473.

이 책의 471쪽에는 ‘1895年頃’으로 되어 있으나, ‘1900年頃’의 오키로 판단된다. 475쪽에서는 ‘1900年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900년 간행의 「찬미가」와의 관련성 설명 등 관련 기록의 진후 문맥을 검토해 본 결과, ‘1900年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113) 청구기호 C16-A20A

114) 金良善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尹炳泰(1992), 471 참조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耶蘇三字經大字’,<sup>115)</sup> ‘耶蘇三字經大字(後期)’,<sup>116)</sup> ‘耶蘇三字經字’<sup>117)</sup> ‘耶蘇三字經韓大字’<sup>118)</sup> 등이 있다.

## 2.11 耶蘇三字經洋大字

2.9에서 설명한 3종의 「眞理便讀三字經」 중 洋紙에 인쇄한 「眞理便讀三字經」에 쓰인 한자 대자의 목활자이다. 활자의 크기는 2.7×1.9cm 내외이다.<sup>119)</sup> 洋紙本 「眞理便讀三字經」에는 표제지에 ‘大韓隆熙二年戊申 예수교서회간인’이라는 간인가가 있어서 융희 2(1908)년에 예수교서회에서 간인했음을 알 수 있다. 耶蘇三字經韓大字와 거의 비슷한 인서체에 가까운 자체이며, 그 자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인본은 耶蘇三字經唐大字와 耶蘇三字經韓大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洋紙本 「眞理便讀三字經」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耶蘇三字經大字’,<sup>120)</sup> ‘耶蘇三字經大字(後期)’,<sup>121)</sup> ‘耶蘇三字經洋大字’,<sup>122)</sup> ‘耶蘇三字經字’<sup>123)</sup> 등이 있다.

## 3. 기존 활자명 분석

115) 尹炳泰(1992).

116) 尹炳泰(1975. 12).

117) 천혜봉(1993) 등 2종의 자료.

118) 尹炳泰(1974. 12) 등 2종의 자료.

119) 尹炳泰(1992), 475.

120) 尹炳泰(1992).

121) 尹炳泰(1975. 12).

122) 尹炳泰(1974. 12) 등 2종의 자료.

123) 천혜봉(1993) 등 2종의 자료.

2.에서 표준 활자명의 선정 대상으로 삼은 활자는 모두 11종이다. 이들 활자들 대부분은 이미 많은 異名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명칭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기존 활자명들에 이용된 다양한 요소들이 각 활자별로 지금까지의 연구로 얼마나 밝혀졌는지를 살펴보자. 그것을 분석한 것이 <표 1>이다

<표 1>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 중 밝혀진 사항들

| 요소<br>활자    | 계열<br>활자 | 구성 |    |         |         | 자본     |         |    | 소<br>유<br>자 | (주)<br>사용<br>처 | 초<br>인<br>본 | 계 |    |
|-------------|----------|----|----|---------|---------|--------|---------|----|-------------|----------------|-------------|---|----|
|             |          | 시기 |    | 구성<br>자 | 구성<br>처 | 목<br>적 | 필서<br>자 | 활자 |             |                |             |   | 글씨 |
|             |          | 분명 | 대략 |         |         |        |         |    |             |                |             |   |    |
| 金陵集字        |          |    | ○  | ○       | ○       | ○      |         |    |             | ○              | ○           | ○ | 7  |
| 增註三字經字      |          | ○  |    | ○       | ○       | ○      |         |    |             | ○              | ○           | ○ | 7  |
| 光州筆書體木活字    |          |    | ○  |         |         |        |         |    |             |                | ○           |   | 2  |
| 光州大峙洞筆書體木活字 |          |    | ○  |         |         |        |         |    |             |                | ○           |   | 2  |
| 寶光社印書體字     |          | ○  |    | ○       | ○       | ○      |         |    |             | ○              | ○           | ○ | 7  |
| 孝宗御批大字      |          |    | ○  |         |         | ○      | ○       |    | ○           |                |             | ○ | 5  |
| 七政曆木活字      | ○        |    | ○  |         |         |        |         |    |             | ○              | ○           |   | 4  |
| 學部印書體木活字    |          | ○  |    | ○       | ○       | ○      |         | ○  |             | ○              | ○           |   | 7  |
| 耶蘇三字經唐大字    | ○        |    | ○  | ○       | ○       | ○      |         |    |             | ○              | ○           | ○ | 8  |
| 耶蘇三字經韓大字    | ○        |    | ○  | ○       | ○       | ○      |         |    |             | ○              | ○           | ○ | 8  |
| 耶蘇三字經洋大字    | ○        |    | ○  | ○       | ○       | ○      |         |    |             | ○              | ○           | ○ | 8  |
| 계           | 4        | 33 |    |         |         |        | 3       |    |             | 8              | 10          | 7 | 65 |
|             |          | 11 |    | 7       | 7       | 8      | 1       | 1  | 1           |                |             |   |    |
|             |          | 3  | 8  |         |         |        |         |    |             |                |             |   |    |

<표 1>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요소들에 설명을 덧붙이면, ‘계열 활자’는 활자들 간에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통성을 지닌 활자들을 묶어서 다룰 수 있는 활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목활자’와 같이 재료가, ‘대자’와 같이 크기가, ‘필서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서체가 같은 활자들을 묶은 群은 계열 활자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구성시기’는 조성년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경우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조성년도가 추정되는 경우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성자’는 조성의 주체가 된 사람이나 기관이 누구인지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구성처’는 조성된 지역, 기관, 장

소 중 어느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를 말한다. 자본의 쉼서자는 자본이 된 인본의 글씨를 썼거나 그 인본을 찍은 활자의 자본을 쓴 사람을 일컫는다. ‘소유자’는 조성에 관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유하기만 하였던 개인이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성에 관련되면서 그 활자를 보유하고 있던 기관은 조성처에, 개인은 조성자에 분류하였다. ‘(주)사용처’는 그 활자를 사용한 기관이나 문중, 지방 등이 알려져 있는 경우로, 모든 사용처가 알려지지 않고 주된 사용처만 알려진 경우에도 포함시켰다.

금속(또는 銅, 鐵 등)이나 나무이냐를 밝힌 ‘재료’는 命名에 많이 이용되는 요소이지만, 이 논고가 목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에 나타낼 필요가 없어 생략하였다. 활자의 서체나 크기 역시 命名의 요소로 이용되었지만, 인본이 전해지기만 하면 글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인본의 종류나 인본의 서명도 역시 활자명의 요소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각 활자의 인본 목록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마찬가지로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다음의 집계를 통해서 각 활자들에 관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를 알 수 있고, 아래쪽의 집계를 통해서 전체 활자들에 대하여 어떤 요소들이 많이 밝혀졌는지를 알 수 있다. 金陵集字, 增註三字經字, 寶光社印書體字, 學部印書體木活字, 耶蘇三字經唐大字, 耶蘇三字經韓大字 및 耶蘇三字經洋大字가 다른 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진 요소들이 많고, 요소들 중에서는 자본에 관련된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열 활자와 같은 요소는 일부 활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는 기존의 활자명들이 어떤 요소를 얼마만큼 이용하였는가를 분석한 표다. 紙面의 제약으로 <표 2-1>과 <표 2-2>로 나누었으니 옆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 편의상 <표 2-1>과 <표 2-2>를 합쳐 <표 2>로 부르겠다.

<표 2-1>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의 이용 횟수

| 요소<br>활자    | 구성 |         |         |    | 자본       |    |     |     |           | 계열<br>활자<br>명 |
|-------------|----|---------|---------|----|----------|----|-----|-----|-----------|---------------|
|             | 순서 | 구성<br>자 | 구성<br>처 | 목적 | 필서<br>자명 | 글씨 | 모방  |     |           |               |
|             |    |         |         |    |          |    | '式' | '倣' | 중국식<br>용어 |               |
| 金陵集字        |    | 1       | 2       |    |          |    | 3   | 3   | 9         |               |
| 增註三字經字      |    |         |         | 2  |          |    |     |     |           |               |
| 光州筆書體木活字    |    |         | 1       |    |          |    |     |     |           |               |
| 光州大峙洞筆書體木活字 |    |         |         |    |          |    |     |     |           |               |
| 寶光社印書體字     |    |         | 2       |    |          |    |     |     |           |               |
| 孝宗御批大字      |    |         |         |    | 3        | 2  |     |     |           |               |
| 七政曆木活字      |    |         | 4       |    |          |    |     |     |           | 4             |
| 學部印書體木活字    |    |         | 6       |    |          |    |     |     |           |               |
| 耶蘇三字經唐大字    |    |         |         |    |          |    |     |     |           | 1             |
| 耶蘇三字經韓大字    | 1  |         |         |    |          |    |     |     |           | 1             |
| 耶蘇三字經洋大字    | 1  |         |         |    |          |    |     |     |           | 1             |
| 계           | 20 |         |         |    | 20       |    |     |     |           | 7             |
|             | 2  | 1       | 15      | 2  | 3        | 2  | 15  |     |           |               |
|             |    |         |         |    |          |    | 3   | 3   | 9         |               |

<표 2-2>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의 이용 횟수

| 요소<br>활자    | 재료 | 서체 | 크기 | 용도 | (주)<br>사용<br>처 | 초인<br>본 | (주)인본 |    | 기타 | 계   | 기존<br>활자<br>명수 |
|-------------|----|----|----|----|----------------|---------|-------|----|----|-----|----------------|
|             |    |    |    |    |                |         | 서명    | 종류 |    |     |                |
| 金陵集字        | 4  | 5  |    |    |                | 2       |       |    |    | 29  | 12             |
| 增註三字經字      |    |    |    |    |                |         |       |    |    | 2   | 2              |
| 光州筆書體木活字    | 2  | 2  |    |    | 2              |         |       |    |    | 7   | 2              |
| 光州大峙洞筆書體木活字 | 1  | 1  |    |    | 1              |         |       |    |    | 3   | 1              |
| 寶光社印書體字     |    | 1  |    |    | 2              |         |       |    |    | 5   | 2              |
| 孝宗御批大字      |    |    | 3  |    |                |         |       |    |    | 8   | 3              |
| 七政曆木活字      | 8  |    |    | 5  | 4              |         |       | 9  |    | 34  | 13             |
| 學部印書體木活字    | 3  | 2  |    |    | 6              |         |       |    |    | 17  | 6              |
| 耶蘇三字經唐大字    |    |    | 2  |    |                |         | 3     |    | 1  | 7   | 3              |
| 耶蘇三字經韓大字    |    |    | 3  |    |                |         | 4     |    | 1  | 10  | 4              |
| 耶蘇三字經洋大字    |    |    | 3  |    |                |         | 4     |    | 1  | 10  | 4              |
| 계           | 18 | 11 | 11 | 5  | 15             | 2       | 20    |    | 3  | 132 | 52             |
|             |    |    |    |    |                |         | 11    | 9  |    |     |                |

<표 2>에서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를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몇몇 경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것은 실제 적용된 경우가 여러 번인 것도

있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는 하나씩만 들었으므로 같은 경우이면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먼저 예외적인 요소는 특정 요소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기타에 분류하였다. 여기서 ‘예외적인 요소’라 함은 한국의 고활자들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요소로서 활자명을 선정 또는 命名할 때 일반적인 적용이 어렵고,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독특한 요소들을 말한다. 耶蘇三字經大字<sup>124)</sup> 활자들의 명칭에서 사용된 ‘唐’, ‘韓’ 및 ‘洋’처럼 인본에 사용된 책지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다른 활자명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가 이에 해당한다.

金陵集字를 가리키는 ‘金陵聚珍字’에서 ‘金陵’이란 단어는 命名者가 命名할 때 조성자의 號이면서 동시에 초인본의 서명임<sup>125)</sup> 밝히고 이용한 경우이다.<sup>126)</sup> 이와 같이 命名者가 요소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하였다.

學部印書體木活字를 가리키는 여러 명칭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學部’는 그 활자의 조성처이면서 동시에 주사용처이기도 하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같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命名할 때 命名者가 어느 요소를 채택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하였다.

七政曆木活字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觀象監活字처럼 계열활자명으로 불리어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조성처 또는 주사용처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도 역시 命名할 때 命名者가 어느 요소를 채택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

124) 추후의 논고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耶蘇三字經唐大字, 耶蘇三字經韓大字 및 耶蘇三字經洋大字를 묶어서 부를 수 있는 계열활자명으로 사용하였다.

125) ‘集’, ‘文集’, ‘先生文集’ 등 문집임을 가리키는 글자를 덧붙이지 아니하고 號만으로 서명이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命名者가 밝힌 의도를 존중한다.

126) 천혜봉 (1993), 114.

하였다.

‘增註三字經字’처럼 조성의 목적이 어떤 인본을 인출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조성목적을 命名의 요소로 이용할 때 대개 인본의 서명을 택한다. 또한 조성의 목적이 된 인본이 초인본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조성의 목적과 인본 또는 초인본이 중복될 경우에는 조성목적에 분류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종의 활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쓰인 적이 있는 활자명 수는 모두 52개이다. 한 활자에 대하여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3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균 약 5개의 활자명이 사용된 셈이 된다. 그리고 이 52개의 활자명은 19종의 요소 중 1~5개의 요소를 단독으로 혹은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 번 쓰인 요소부터 열여덟 번 쓰인 요소까지 활자에 관하여 밝혀진 사항이나 命名者나 사용자의 선호도와 판단 등에 따라 이들 요소를 선택하여 활자명에 이용한 것이다.

<표 2>를 이용해 활자에 상관없이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을 이용률 순으로 다시 정렬해보면 <표 3>과 같이 된다. 이 표 역시 紙面의 제약으로 <표 3-1>과 <표 3-2>로 나누었으니 옆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 편의상 <표 3-1>과 <표 3-2>을 합쳐 <표 3>으로 부르겠다.

<표 3-1> 이용률 순으로 본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

| 구분 \ 요소         | 계열<br>활자<br>명 | 자본:<br>필서<br>자명 | 자본:<br>글씨 | 조성<br>처 | (주)<br>사용<br>처 | 조성<br>순서 | 자본:<br>모방·중<br>국식용<br>어 | 재료 | 서체 | 크기 |
|-----------------|---------------|-----------------|-----------|---------|----------------|----------|-------------------------|----|----|----|
| 밝혀진 활자<br>종수(A) | 4             | 1               | 1         | 7       | 10             | 4        | 2                       | 11 | 11 | 11 |
| 이용 활자 종수(B)     | 4             | 1               | 1         | 5       | 5              | 2        | 1                       | 5  | 5  | 4  |
| 이용률(B/A(%))     | 100           | 100             | 100       | 71      | 50             | 50       | 50                      | 45 | 45 | 36 |
| 총 이용 횟수         | 7             | 3               | 2         | 15      | 15             | 2        | 9                       | 18 | 11 | 11 |

&lt;표 3-2&gt; 이용률 순으로 본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

| 구분 \ 요소         | 자본:<br>모방:<br>'倣' | 자본:<br>모방:<br>'式' | (주)<br>인본<br>서명 | 조성<br>자 | 초인<br>본 | 조성<br>목적 | (주)<br>인본<br>종류 | 용도 | 계   |
|-----------------|-------------------|-------------------|-----------------|---------|---------|----------|-----------------|----|-----|
| 밝혀진 활자<br>종수(A) | 3                 | 3                 | 11              | 7       | 7       | 8        | 11              | 11 |     |
| 이용 활자 종수(B)     | 1                 | 1                 | 3               | 1       | 1       | 1        | 1               | 1  |     |
| 이용률(B/A(%))     | 33                | 33                | 27              | 14      | 14      | 13       | 9               | 9  |     |
| 총 이용 횟수         | 3                 | 3                 | 11              | 1       | 2       | 2        | 9               | 5  | 129 |

<표 3>에서 ‘밝혀진 활자 종수’는 연구를 통하여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가 밝혀진 활자의 종수를 의미하고, ‘이용 활자 종수’는 요소가 기존의 해당 활자명들에서 한 번 이상 이용된 적이 있는 활자의 종수를 의미하며, ‘총 이용 횟수’는 전체 기존 활자명에서 이용된 횟수를 의미한다.

이 분석은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들 중 여기에서 다룬 11종의 조선조 말기에 조성된 것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고활자 전체에 대한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후자의 분석은 후속연구들이 완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활자명에 이용되는 요소는 시기, 재료, 문자, 크기 등에 따라 독특한 경향이 있다. 즉 임진왜란 이전의 금속활자인 경우에는 당시에 干支를 이용한 활자명을 주로 사용하였다거나, 銅 이외의 재료로 만든 활자의 경우에는 활자명에 재료명을 넣는 경우가 많다거나, 한자 이외의 문자로 된 활자의 경우에는 문자명을 포함시킨다거나, 중자 이외의 크기의 활자만 만든 경우에는 크기를 포함시켰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향들을 무시하고 전체 고활자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든 종류의 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킨다면 분명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적인 분석도 나름대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표 2>에서 기타에 분류하였던 요소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 일반적인 경향을 살피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 3>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이용률이 100%인 요소는 ‘계열활자명’, ‘자본을 쓴 필서자명’, 및 ‘자본이 된 글씨’의 3중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소들은 밝혀지지만 했다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命名에 이용될 만큼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00%의 이용률을 보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계열활자명’의 총 이용 횟수가 7회로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발표한 논고들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밝혔지만,<sup>127)</sup>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같은 계열에 속하는 활자들이 후대의 연구에 의하여 분명하게 개별 활자들로 구분되기 전에는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어졌으며, 그 활자명들이 곧 계열활자명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같은 계열이 아닌 다른 활자들과 구분할 때는 단순히 계열활자명만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계열활자명을 활자명의 요소에 포함시키면 같은 요소를 지닌 활자들의 동질성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소속 활자들의 동질성이나 활자명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넷째는, 후대로 올수록 계열 활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계열활자명인 동시에 조성처, 조성목적, 주사용처, 입수 방법 및 크기 등의 요소와 중복되거나 그러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어느 요소를 채택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한데서 다소 영향을 받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동안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자본을 쓴 필서자나 자본이 된 인본이 알려졌을 경우, 그러한 요소들이 명칭에 즐겨 이용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이 된 인본이 알려진 경우는 없고, 대신에 자본이 된 글씨가 알려진 경우가 1종이 있으며 활자명에 이용되었다. 자

127) ① 윤상기(1998. 12), 111.

② 윤상기(2000. 6), 121.

③ 윤상기(2002. 9), 75.

④ 윤상기(2002. 12), 456-457.

본이 된 인본과 거의 같은 경우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命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성처’가 75%로 절반 이상의 비교적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요소는 이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활자명 분석에서도 대체로 이용률이 높았던 요소이다.

이어서 ‘(주)사용처’, ‘조성순서’ 및 ‘자본: 모방: 중국식 용어’<sup>128)</sup>가 50%로 절반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사용처’는 인본의 조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밝혀지는 요소인데, 대체로 ‘조성처’와 같은 경우가 많으며, ‘조성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命名의 요소로 자주 이용되는 편이다. 아마도 훗날 ‘조성처’가 밝혀지더라도 ‘(주)사용처’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개명할 필요성이 덜 하리라는 기대도 담고 있었을 것이다. ‘조성순서’는 계열 활자가 있는 경우에 그들 중의 조성순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항상 ‘계열활자명’과 더불어 사용된다. 앞서 밝혔듯이 ‘계열활자명’은 10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열 활자에 속하는 어떤 활자를 지칭할 때, 굳이 조성순서를 밝히지 않아도 그 활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를<sup>129)</sup>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열활자명과 더불어 사용되는 요소이다. 자연히 자주 이용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자본: 모방: 중국식 용어’는 다소 특이한 命名 요소이다. 비록 자본이 된 인본의 구체적인 서명은 알 수 없지만, 金陵集字와 寶光社印書體字는 중국의 인본이 자본이 된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 이들 중 金陵集字의 異稱들에서만 자본:모방:중국식 용어’라는 요소가 이용되었다. 이것은 2.1에서 이미 밝혔듯이 金陵集字로 인출한 『歸恩堂集』과 『保晚齋集』에서 사용한 聚珍版本과 聚珍字라는 용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의미는 ‘활자본’과 ‘활자’일뿐이다. 인본에 나타나는 용어임을 중시하여 이용하였던 것 같다.

128) 중국의 활자본을 자본으로 하였으므로, 활자 또는 활자본에 해당하는 중국 용어인 ‘취진판’ 또는 ‘취진판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이들 용어에서 ‘취진판’ 따와서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129) 한 글에서 주·조성순서까지 포함된 활자명으로 먼저 언급한 뒤, 다음에 그 활자를 다시 지칭할 때는 간혹 주·조성순서를 제외한 계열활자명만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다음으로 ‘재료’와 ‘서체’가 각각 45%로서 절반 이하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이 중 ‘재료’는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일련의 연구에서 다른 활자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이용률이 높았던 요소인데, 이번에 대상이 된 11종의 활자들에 있어서는 다소 낮게 이용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이용된 것은 ‘크기’로서 36%이다. 그런데, 이 요소의 이용률은 단순히 나타난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여러 크기의 활자를 한꺼번에 주·조성했을 때는 그 활자 전부를 아우르는 활자명이 있고, 크기에 따른 활자는 그 활자명의 마지막에 대자, 중자, 소자 등의 용어를 덧붙여 사용해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여러 크기의 활자를 포함한 한 벌의 활자인 경우, 그 활자 전부를 아우르는 활자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크기에 따른 활자명은 후일에 일괄적으로 따로 다룰 생각이었다. 그런데, 간혹 특수한 용도로 쓰기 위해 일반적인 중자 크기의 활자보다 확연히 큰 대자만을 주·조성하고 중자나 소자는 주·조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자만으로도 한 종류의 활자이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대자만 주·조성된 활자들은 그 확연한 크기의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칭 상에 ‘大字’가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의 ‘大字’는 한 벌의 활자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활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중자 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활자라는 뜻으로 비교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결국, 대자만 주·조성한 활자의 명칭에는 ‘크기’라는 요소가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벌의 활자를 아우르는 활자명에서는 다양한 크기 때문에 ‘크기’라는 요소가 命名에 이용될 수 없으므로, 전체 11종의 활자 중 대자만을 조성한 것이 4종이고, 그 4종의 활자들에서 ‘크기’라는 요소가 다 이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100%의 이용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크기’라는 요소는 실제로는 매우 이용률이 높은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요소들은 33% 이하의 비교적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데, ‘모방했음을 나타내는 ‘倣’자’와 ‘모방했음을 나타내는 ‘式’자’가 33%, ‘(주)인본의 서명’이 27%, ‘조성자’와 ‘초인본’이 14%, ‘조성목적’이 13%, ‘(주)인본의 종류’와 刊

또는 卍으로 표현된 ‘용도’를 나타내는 요소가 9%의 순으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 4. 표준 활자명의 선정

3.에서 기존의 활자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활자명을 命名하거나 사용할 때 命名者 또는 사용자가 어떤 요소를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와 필자가 앞서 발표한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표준 활자명들을 선정해보고자 한다.

선정하는 방식은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과, 선정되어서는 안 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 그리고 이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치밀한 방법이겠으나, 紙面의 제약도 있고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장황스럽게 기술하는 것도 오히려 독자들을 번거롭게 할뿐이라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을 채택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선정되어서는 안 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을 병행하겠다.

##### 4.1 金陵集字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1936년에 前間恭作의 글에서 쓰인 ‘聚珍字’이며,<sup>130)</sup> 이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어져 왔다.<sup>131)</sup> 그리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이미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활자로 찍은 『歸恩堂集』에서 ‘聚珍版本’이라 한 것과 현종 4(1838)년에 이 활자로 간행한 『保晚齋集』의 발문 중에 이 활자를 ‘聚珍字’라고 지칭하고 있는 데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활자로 인출한 여러 종류의 책들에서도

130) 前間恭作(1936. 12).

131) 金元龍(1954) 등 23종의 자료에서 쓰인 것을 보았다.

‘聚珍’, ‘聚珍堂活字’, ‘聚珍字’, ‘聚珍板’, ‘聚珍板式’ 등의 용어가 明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sup>132)</sup> 모든 학자들도 ‘聚珍字’가 활자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 명칭은 청나라에서 무영전취진판(武英殿聚珍版)이란 활자판이 나왔을 때 그네들은 활자판의 명칭이 익숙지 않아 건륭제(乾隆帝)가 취진판으로 이름을 내린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그 용례의 영향을 받아 활자판의 일반적 뜻으로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33)</sup>

이 名稱은 절대로 固有名稱으로 使用하였다기보다는 活字 全般에 共通되는 通常名稱으로 使用되었다는 것이 알맞은 말인 것이다.<sup>134)</sup>

따라서 이 명칭을 그대로 활자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쓰인 명칭은 1954년에 金元龍이 사용한 ‘箕營木字’이다.<sup>135)</sup> 그러나 이 활자명은 필자가 전고에서 이미 다루었듯이,<sup>136)</sup> 箕營筆書體字와 동일한 활자인 것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므로 이 활자의 명칭으로는 쓸 수 없다.

이어서 1960년 房兆楹의 글에서는 ‘聚珍版字’가<sup>137)</sup> 1965년에 李聖儀가 편찬한 서목에서는 ‘聚珍木活字’가 각각 사용되었으나,<sup>138)</sup> 앞의 ‘聚珍字’의 경우에서와 같은 이유로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聚珍木活字’의 경우, ‘聚珍’이 ‘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聚珍’ 대신에 ‘활자’를 대입해보면 두 단어의 결합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명칭은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로 1973년에 尹炳泰가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132) 尹炳泰(1992), 366-368에 잘 정리되어 있다.

133) 錢榘(1993), 114.

134) 尹炳泰(1992), 365.

135) 金元龍(1954).

136) 윤상기(2002. 12), 442.

137) 房兆楹(1960. 8), 28-29.

138) 李聖儀(1965).

여기에서, 여섯것 詳論한 所謂“聚珍字”에 對하여 筆者는 이를 “倣聚珍版式 筆書體木活字”라 고쳐 부르기를 提案 한다 그理由로

1. 千支만을 붙인 字名은 判別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
2. 이 活字의 造成處는 平壤으로 斷定하기는 아직 資料가 充分치 않으므로 地名이나 機關名을 붙일 수 없다.
3. 從前부터 “聚珍字”로 불려 왔으며
4. 그것은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의 方法을 導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5. 字體가 半行半楷의
6. 木活字인 까닭이다.<sup>139)</sup>

문제가 될 수 있는 ‘聚珍版’에 있어서는 인용문을 통해 단순히 활자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倣聚珍版式’이 중국의 ‘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의 방법을 모방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명칭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尹炳泰는 이 활자명의 제안 후 명칭에 대한 異見이 나타나자 다음과 같이 고쳐 부를 것을 다시 제안했다.

그래서 筆者는 이 活字의 名稱을 ‘倣聚珍版式筆書體木活字’라 고쳐 부르기를 提案한 바 있다.<sup>140)</sup> 이에 대하여 千惠鳳은 《韓國古印刷史》에서 “聚珍筆書體字”라는 名稱으로 바꾸어 불렀다.<sup>141)</sup> 아마도 筆者의 名稱이 길기 때문에 줄여 부르기로 한 것 같다. 한편 孫寶基는 《새판 한국의 고활자》에서 이 活字의 名稱을 “奎章閣字”라고 고쳐 부르고 있다.<sup>142)</sup> 이렇게 活字名의 異見이 많을 경우에는 活字의 名稱을 그 初印本의 書名을 붙이는 쪽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 活字는 ‘金陵集字’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sup>143)</sup>

제안이라고 한 것은 命名에 대한 검양의 표현이라 생각되므로, 이 경우는 정식으로 처음 命名한 자가 異見을 고려하여 改名한 것이므로 命名者의 의견을

139) 尹炳泰(1973. 12), 78-79.

140) 尹炳泰(1973. 12), 72-79.

141) 千惠鳳(1976), 101.

142) 손보기(1982), 112.

143) 尹炳泰(1992), 368.

존중하여 改名한 ‘金陵集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 4.2 增註三字經字

이 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尹炳泰가 1975년에 처음으로 인본의 서명을 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筆者는 여기에서 이 活字의 名稱을 增註三字經字로 부르며, 그 中에서 大字는 增註三字經大字, 小字는 增註三字經小字라 부를 것을 提案한다.

그 理由로는

첫째, 이 책의 書名이 增註三字經이며

둘째, 增註라는 글자를 붙인 것은 耶蘇三字經大字와 區分기 위함이며,

세째, 그 字體에 아무런 特徵이 없는 楷正한 字體이며,

네째, 筆者나 字本이 分明히 밝혀지지 아니한 까닭이다.<sup>144)</sup>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增註三字經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 4.3 光州筆書體木活字

이 활자를 처음으로 소개한 玉泳最은 이 활자의 命名에 앞서 다음과 같은 활자명의 부여 원칙을 세웠다.

명칭은 활자의 제작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적용하지 만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명칭부여의 통일성을 기하여 위하여, 초 기인본의 인출기록을 바탕으로 처음에 그 활자로 인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한 후 서체를 구분하여 지역명 다음에 이어서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서체는 筆書體와 印書體로 크게 구분하되 보다 구체적인 書體로 정해질 경우 그에 따랐으며, 그 활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활자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名의 다음위치나, 書體의 앞 위치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목활자 명칭을 정하였다.<sup>145)</sup>

144) 尹炳泰(1975. 4), 33.

145) 玉泳最(2002. 10), 18-19.

위와 같은 원칙하에 이 활자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光州 筆書體 木活字’로 정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光州 高氏筆書體 木活字’로 정해볼 수 있다”<sup>146)</sup>고 하여 두 개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활자명 중 먼저 기록함은 물론, 질 제목을 비롯하여 그의 논문 전반에 걸쳐 ‘光州 筆書體 木活字’를 사용하면서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활자명을 표준 활자명으로 채택하는 것이 命名者의 의도를 존중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명칭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전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다.

띄어쓰기는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경향이 많은데,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데에 사용자들이 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 않은데다 고유명사는 붙여 쓰는 것이 옳으므로 모두 붙여 쓰기로 통일한다. 이후의 標準 活字名 선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sup>147)</sup>

따라서 필자는 이 활자에 대해서 ‘光州筆書體木活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

#### 4.4 光州大峙祠筆書體木活字

이 활자를 처음으로 소개한 玉泳晟은 4.3에서 이미 소개한 자신의 활자명 부여 원칙에 따라, “임시로 그 활자명칭을 ‘光州 大峙祠 筆書體 木活字’로 정하여 보았다”<sup>148)</sup>고 하였다. 비록 임시라고는 하였지만 이 명칭이 유일한 것이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명칭을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활자 역시 띄어쓰기 문제가 있으므로, 4.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光州大峙祠筆書體木活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

146) 玉泳晟(2002. 10), 37.

147) 윤상기(1998. 2), 575.

148) 玉泳晟(2002. 10).



#### 4.5 寶光社印書體字

이 활자에 대해서는 尹炳泰가 1989년에 이 활자에 관한 자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寶光社 印書體字’<sup>149)</sup>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命名의 근거는 “세 가지 印本の 印出記에, 寶光社라 있고, 또 印書體의 活字이므로 임시로 寶光社印書體字라고 부르기로 한다.”<sup>150)</sup>는 것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 띄어쓰기한 것도 나중에는 붙여쓰기를 하였으므로,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는 ‘寶光社印書體字’를 선정한다.

#### 4.6 孝宗御批大字

이 활자를 처음 소개하고 命名한 尹炳泰는 처음에는 “이 활자의 명칭은 孝宗의 御筆을 그대로 模刻한 것이므로 임시로 孝宗大字라 부른다.”<sup>151)</sup>고 하였다가, 1978년의 글에서부터는 <sup>152)</sup> ‘孝宗御批大字’로 고쳐 부르고 있다. 그 후 1992년의 책에서는 ‘孝宗御筆大字’라는 명칭도 쓴 적이 있으나, 이 명칭은 권말 부록인 <韓國活字印刷史年表>에서만 쓰였을 뿐,<sup>153)</sup> 본문에서는 여전히 ‘孝宗御批大字’를 쓰고 있으므로 <sup>154)</sup> 표준 활자명으로는 ‘孝宗御批大字’를 선정한다.

#### 4.7 七政曆木活字

이 활자는 종래 구분하지 않고 총칭해오던 印曆字系 활자들을 金相溟가

149) 尹炳泰(1989. 12), 5-16.

150) 尹炳泰(1992), 465.

151) 尹炳泰(1975. 12), 137.

152) 尹炳泰(1978. 12) 등 2종의 자료.

153) 尹炳泰(1992), 518.

154) 尹炳泰(1992), 483.

몇 종류로 구분한 것 중의 하나이다. 그는 이 활자의 명칭을 인본서명과 그 재료에 따라 ‘七政曆木活字’로命名하였다.<sup>155)</sup> 이 활자에 대한 명칭으로는 총 13종이 조사되어 많은 異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부분은 계열 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한데서 나온 명칭이다. 필자가 전고에서 이미 다룬 ‘七政曆鐵活字’와의 관계와 계열 활자 문제 등을 고려하여<sup>156)</sup> ‘七政曆木活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 4.8 學部印書體木活字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들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은 1967년 김두중에 의한 ‘學部印書體木活字’이다.<sup>157)</sup> 이 활자명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다만, 김두중이 1974년의 책에서는 ‘學部印書體字’라는 명칭을 사용한 적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韓國古印刷技術史』 347쪽의 목 제목에서는 ‘學部印書體 木活字’라고 하고, 366쪽의 표 내용에서는 ‘學部印書體字’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말의 색인에는 ‘學部印書體字’라는 표제어는 없는 반면, ‘學部印書體木活字’라는 표제어만 있어서 347쪽과 366쪽으로 안내하고 있다.<sup>158)</sup> 이것으로 보아 ‘學部印書體字’는 표의 칸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였거나 아니면 무심코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는 ‘學部印書體木活字’를 선정한다.

#### 4.9 耶蘇三字經唐大字

처음으로 이 활자를 포함하여 耶蘇三字經韓大字, 耶蘇三字經洋大字 등 耶蘇三字經大字 전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여 발표한 尹炳泰가 다음과 같이 命

155) 金相溥(1987), 145-146.

156) 윤상기(1998. 12), 120-121.

157) 金斗鍾(1967. 7).

158) 金斗鍾(1974), 347, 366, 615.

名하였다.

筆者는 이에, 이 特大字의 字名을 耶蘇三字經大字라고 통털어 부를 것과, 必要에 따라서 唐紙本の 特大字는 耶蘇三字經唐大字, 韓紙本の 特大字는 耶蘇三字經韓大字, 洋紙本の 特大字는 耶蘇三字經洋大字라고 區分하여 부를 것을 提議한다. 그 理由로는

첫째. 이 세가지 大字中 唐紙本の 標題紙에 「耶蘇敎書局印發」이라는 分明한 印出處가 밝혀져 있으므로, 訓練都監에서 刻成한 木活字를 訓監字로 略稱하거나, 校書館의 印書體 鐵字를 芸閣印書體字라고 略稱하는 경우와 같이, 耶蘇敎書局의 “耶蘇”를 뺏으며,

둘째. “耶蘇”는 Jesus를 意味하는 漢字의 借字로서, 文教部의 方針에 따라 “外來語는 英語를 基準으로 表記한다”는 原則에 따르면 그 音이 “dʒ·zəs” 즉 “지저스”가 되니 原音과 너무나 거리가 먼 發音이 되기 쉬운 點을 避히기도 좋은 點과

셋째. “三字經”은 이 眞理便讀三字經의 版心題가 例外없이 三字經이며,

넷째. 이 特大字로 印出한 책으로는 이 眞理便讀三字經 以外에는 發見되지 않았으며,

다섯째. 이 字名이 “大字”만을 規定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까닭이다<sup>159)</sup>

이 활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된 다른 두 종류의 활자명은 계열 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명칭들로서, 이 활자만을 지칭한 명칭은 ‘耶蘇三字經唐大字’ 뿐이다. ‘耶蘇三字經唐大字’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명칭을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 4.10 耶蘇三字經韓大字

4.9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耶蘇三字經韓大字’를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이 활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된 다른 두 종류의 활자명은 계열 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명칭들이고, ‘耶蘇三字經唐大字(後期)’는 ‘耶蘇三字經韓大字’와 ‘耶蘇三字經洋大字’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명칭이므로, 이 활자만을 지칭한 명칭은 ‘耶蘇三字經韓大字’ 뿐이다.

159) 尹炳泰(1974. 12), 28-29.

#### 4.11 耶蘇三字經洋大字

4.9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耶蘇三字經洋大字’를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異稱에 대해서는 4.10의 경우와 동일하다.

### 5. 결 론

이 연구는 필자가 계획·진행 중인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목활자들 중 조성시기 순에 따라 먼저 발표한 29종의 목활자에 이어 조성된 나머지 11종의 목활자들에 대하여 기본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들을 요약하면, 먼저 대상 활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간단한 내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각 문헌을 통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을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하여 각 활자별로 나열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이 어떤 요소들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선호도는 새로 발견된 활자에 대하여 命名하거나 기존의 활자에 대해 改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필자 나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총 11종의 활자들에 대하여 ‘金陵集字’, ‘增註三字經字’, ‘光州筆書體木活字’, ‘光州大峙洞筆書體木活字’, ‘寶光社印書體字’, ‘孝宗御批大字’, ‘七政曆木活字’, ‘學部印書體木活字’, ‘耶蘇三字經唐大字’, ‘耶蘇三字經韓大字’, ‘耶蘇三字經洋大字’를 각각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하였다.

표준 활자명의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들은 필자가 앞서 발표한 논문들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것들뿐이기 때문에 새로이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될 이 일련의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선학들의 호된 질정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淸州古印刷博物館」, 충북: 忠淸北道, 1991.
- [서울대학교 奎章閣 編], “貴重圖書解題” 「奎章閣」1(1976. 11). 권말 vi+138.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刊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6合輯(1990). 235-288.
- 國會圖書館司書局參考書誌課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 權五石, “書堂教材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0輯(1994). 933-988.
-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관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1967. 7). 1-74.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 金斗鍾, 「韓國古印刷文化史」, 서울: 三星美術文化財團, 1980 (三星文化文庫 148).
- 金相溟, “觀象監活字考.” 『書館學』 第14輯(1987). 131-148.
- 金錫淳, “韓國의 古活字 小考.” 『도협월보』 5, no. 6(1964. 7·8). 2-6.
- 金錫淳, “韓國의 古活字와 그 印本.” 『건대신문』 第183號(1964. 9. 18(金)). 2.
-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國立博物館叢書, 甲 第1).
-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郷土 서울』 第7號(1959. 12). 7-66.
- 朴尙均, 「書誌學散藁」, 서울: 民族文化社, 1989.
- 朴齊家, 「北學議」,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1.
- 房兆楹, “鑄字瑣談.” 『書誌』 第1卷 第2號(1960. 8). 28-30.
- 裴賢淑, “尙州 東學敎堂 刊行과 收藏 書籍考.” 『書誌學研究』 第22輯(2001. 12). 33-62.
-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 研究(下): 宣祖 25~隆熙 4년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4號(1969. 6). 133-166.
-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III: 科學技術史』, 서울: 同研究所 出版部, 1968. 965-1061.
-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교양 국사 충

서·21).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寶晉齋, 1982.

손보기. 「세종 시대의 인쇄출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세종문화문고).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한국도서관학연구회, 1971.

辛良善. “19世紀의 書籍政策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0輯(1994). 741-787.

沈守慶. “遺閑雜錄.” 大東野乘. 影印本.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安春根. “匏活字 存否에 대하여.” 『[季刊]書誌學報』 第3號(1990. 12). 81-90.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古書·古文書展示會」. [慶北: 同館, 1997.

玉泳晷. “光州筆書體木活字와 印本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51-353.

玉泳晷.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 專攻. 2002. 10.

尹炳泰. “『增註三字經』 字考.” 『國會圖書館報』 第12卷 第3號(1975. 4). 27-34.

尹炳泰. “奎章閣圖書와 韓國活字印刷史 研究: 그 研究史와 史料를 中心으로.” 『奎章閣』 1(1976. 11). 67-90.

尹炳泰. “寶光社 印書體字에 대하여.” 『古書研究』 第6號(1989. 12). 5-16.

尹炳泰.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 들” 『圖書館學』 第3輯(1973. 12). 47-82, 125.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도서관』 第29卷 第10號(1974. 12). 21-32.

尹炳泰. “朝鮮時代 活字 使用考.” 『奎章閣』 2(1978. 12). 57-77.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5. 12.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서울: 범우사, 1992.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前の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4集(1996. 9), 人文·社會科學篇. 201-255.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前の 木活字를 中心으로”

- 『東義論集』第28集(1998. 2), 人文·社會科學篇, 545-587.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乾).” 『書誌學研究』第16輯(1998. 12), 297-334.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坤).” 『書誌學報』第22號(1998. 12), 89-122.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書誌學研究』第19輯(2000. 6), 101-129.
- 윤상기,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를 중심으로 (II).”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61-85.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II).” 『書誌學研究』第24輯(2002. 12), 437-471.
- 李潭周 編著, 『韓國古活字集』, [서울], 1967.
- 李相一, “開化期 鉛活字導入에 관한 一考察” 『季刊 書誌學報』第6 號1995. 9), 105-123.
- 李聖儀, 『韓國古活字冊書目』, 油印本, [私家版, 1965].
- 藏書閣 編, 『韓國古活字見本帖』, 影印版, 서울: 藏書閣, 1973.
- 前間恭作, “朝鮮の活字板本: 増註『朝鮮の板本』抜抄.” 『朝鮮之圖書館』5, no. 6(1936. 12), 29-60.
-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昭和12(1937).
- 諸洪圭 編著, 『韓國書誌學辭典』, 서울: 景仁文化社, 1974.
- 趙婷化,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研究.” 『書誌學研究』第2輯(1987), 304.
- 千惠鳳, “목활자 木活字.”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8. 城南市: 同研究院, 1991, 78-80.
- 千惠鳳, “책 冊.”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1. 城南市: 同研究院, 1991, 751-762.
- 千惠鳳, “필서체취진자 筆書體聚珍字.”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3. 城南市: 同研究院, 1991, 692-693.
- 千惠鳳, “학부목활자 學部木活字.”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3. 城南市: 同

研究院, 1991. 815.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韓國圖書館學叢書, 14-2).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서울: 민음사, 1997.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1 (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58).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研究會, 1976.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許英仙. “인쇄 印刷.”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8. 城南市: 同研究院, 1991. 489-508.

千惠鳳·洪佑東. “활자 活字.”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5. 城南市: 同研究院, 1991. 434-440.

